

## <지난주 말씀>

▶지난주부터 진행된 야고보서는 다들 행함을 강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는 오히려 복음의 눈으로 봐야 하고 야고보는 철저히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음입니까? 자유의 복음입니다. 그 자유의 복음을 가진 자가 복음 가진 자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말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과 삶이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복음과 행함은 동일한 것이지, 복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높고 행함이 낮고, 행함이 높고 복음이 낮은 게 아니라 복음과 행함이 동일한 것입니다. 복음이 있는 사람은 복음을 따라 행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실천을 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복음 없이 행함만 있어서 뭐 합니까? 그건 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무너지는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 있다고 해서 죄 짓고 회개하면 되고 그걸 반복하고, 이게 아니란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누가 봐도 저렇게 사는구나, 그게 전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전도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삶의 전도가 안되고 있습니다. 복음과 행함을 따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믿음과 행함은 같은 것이다. 약2:22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약2:22)**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삶이 함께 되어지는 것이고 내 삶이 함께 되어짐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어느 쪽에 강조하느냐, 그게 아니고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실상과 증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삶이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오늘도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비밀은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이 변화되어서 정말로 복음가진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이 행함이 온전하게 되어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약2:26)**

영혼이 없다면 그 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영혼이 없는데 살아 있는 건 산 게 아닙니다. 영혼이 있어야 진짜 산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행하는 것입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행위를 강조하다가 율법주의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유의 몸이라고 해서 방종해서는 안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오직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믿음, 그 실상과 증거를 붙잡고 사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구원을 얻는 믿음,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믿음, 지옥의 배경에서 해방되는 믿음,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입니다.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24 제자라는 흐름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기도 응답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새 언약으로 오셨습니다,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말씀 성취로, 구원 역사로, 기도 응답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흐름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무슨 흐름입니까? 성경의 흐름인 복음, 교회의 흐름인 강단, 237나라와 5000종족을 살리는 전도의 흐름입니다. 나는 이 흘러가는 흐름 속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 흐름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배가 흐름을 놓치면 표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나는 지금 이 흐름 속에 어디에 있는지 찾아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해서 내가 뭘 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믿음에서 당연히, 필연, 절대를 찾는 것이 행함입니다. 먼저는 봐야 합니다. 흐름을 봐야 합니다. 물이 흘러가는 걸 봐야 거기에 배를 띄우든지 말든지 하는 것입니다. 흐름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꼭 해야 할 게 뭔지,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뭔지, 내가 안해야 할 게 뭔지, 그걸 찾기를 바랍니다.

▶지금 싸움은 윤리와 도덕의 싸움이 아닙니다. 흐름 싸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윤리와 도덕 때문에 쓰임받은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여인 5명이 나옵니다. 이 여인 5명을 통해 말씀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져왔는지 점검해볼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 흐름이 어떤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에서는 흐름을 놓치니까 회개할 기회조차 잃어버렸습니다. 에서가 흐름을 놓치니까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시대와 민족과 후대가 영원한 저주 가운데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 <본론>

### 1.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약2:1)

우리가 가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영광의 주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맞느냐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졌다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 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약2:2-4)

왜 그렇습니까?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에게는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동일하게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자녀이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교회 가면 이런 것이 너무 표시가 나요. 뭘 모르는 거요?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차별하지 말라는 것은 그 사람이 법적으로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시라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약2:5)**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을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혹시 또 오해할 수 있어요. 돈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돈 많은 부자를 하나님이 차별하냐? 그게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기준을 삼습니다. 믿음 있는 자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약2:6)**

사람들은 부자들, 권력자들, 뭐가 좀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더 귀하게 보십니다. 돈이 없는 게 가난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적 기준은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

## 하는 것이거니와(약2:7-8)

복음이 있는 사람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살리는 사람입니다.

## 2.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약2:9)

살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차별하면 그건 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복음은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복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법적으로 범법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약2:10-12)

자유율법이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자유하다면 율법을 지키는 삶도 나오는 것입니다. 자유율법으로 심판받는 자라는 것은, 내가 복음을 받았다면 삶을 정상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음하고 살인했다는 것은 율법을 범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가진 자, 자유함을 얻은 자는 율법도 동일하게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과 삶이 같고, 삶이 복음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공화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공화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공화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약2:13)

공화함은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약2:14)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뭐니까? 내 삶에 행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는데 행위가 하나도 안 나온다면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게 맞냐는 것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덤계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약2:15-16)

가난한 자가 여러분에게 왔을 때는 옷을 주고 먹을 걸 주는 게 맞지, 말로만 가서 옷 입어라, 배부르게 먹어라 하는 게

맞냐는 것입니다. 이런 말만 하는 사람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과 삶이 같아야 하는데, 의외로 이런 입꾼들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약2:17)

반대로 말하면 산 자는 행함이 나오는 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실제로 그 사람에게 답을 주고 살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어라가 아니고,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네 삶으로 직접 보여주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3.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약2:18-20)

믿음이 있으나 행함이 없는 사람, 행함이 있으나 믿음이 없는 사람, 모두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이 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약2:21)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행위를 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만 가진 게 아니고 행함만 가진 게 아니고 둘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복음은 100세에 얻은 외아들 이삭을 드려도 괜찮은 복음이었습니다. 야고보서가 행함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함께 있는 사람이 바로 복음의 사람입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약2:22)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행함을 통해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함을 통해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솥양을 준비해서 이삭을 살리는, 이 복음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복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약2:23)

아브라함은 믿음과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벗이라는 칭함까지 받았습니다. 이걸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에서 내 삶

이 나오고 내 삶이 행함으로 함께 하나님께 드러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 증인이 아브라함입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약2:24)

아브라함이 믿기만 하고 이삭을 안 바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이 말로만 믿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약2:25)

기생 라합은 거짓말로 하나님께 온전케 된 사람입니다. 이 거짓말이 라합에게는 믿음으로 한 행함이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거짓말을 통해 믿음을 온전케 하신 것입니다. 알아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약2:26)

복음의 사람은 믿음과 행함이 동일한 것입니다. 행함과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 《결론》

▶우리가 가진 믿음은 실상과 증거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상관없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내가 정말로 믿는다면 그에 따른 행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걸 쉽게 말해 영접이라고 합니다. 내가 전달받은 믿음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 증거가 아브라함과 라합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행함과 믿음이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생명빛교회  
ζωη φως ἐκκλησία

주 소 :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60-147호

담임목사 : 곽동호

전 화 : 010-5205-4079

E - mail : dhkwak0224@hanmail.net

인생복음상담 : 070-4406-4079